유암초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⑨ … 창의력을 키우는 무선모형자동차 교실

#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 위해 교육

## 우수학생 선수로 성장하도록 지도

창의력을 키우는 무선모형자동차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소흘읍 고모리의 무선모형자동차 경기장을 직접 찾아 주행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유암초등학교(교장 송종길)는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동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무선모형자동차(RC)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선모형자동차 교실은 어렸을때부터 무선모형자동차 경주를 즐겨온 이경민 교사가 직접 지도하고 있다.

이 교사는 무선모형자동차 경주는 스피드를 즐기는 ON ROAD와 장애물경기를 즐기는 OFF ROAD로 나누는데 유암초등학교에서는 ON ROAD경주를 교육하고 있으며 올 1년동안 배운 학생들이 내년에는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의적 두뇌개발이라는 교육효과에 대해서 모두가 하고 싶지만 교육비용이 막대하여 대중적이지 못한 현실로 현재 8명의 학생들이 무선모형자동차 경주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보다 많은 특기적성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일주일에 2회 교육하는데도 1시간 이상을 할 수 없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2-3시간은 교육시간으로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무선모형자동차 경주 교육은 다양한 주행연습을 통해 순발력과 조정능력을 기르고 이 교사가 직접제작한 무선모형에 대한 비디오자료를 통해 무선모형 제작방법과 주행방법, 에티켓, 기자재사용법 등을 익히고 있다.

또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무선모형자동차 경기장을 직접 찾아 주행연습을 실시하고 대표적인 초보자용 제품을 직접 조립하면서 조립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송종길 유암초등학교 교장은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기계 조작능력 및 순발력을 기를 수 있으며 무선모형 자동차 주행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어떤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탐구심을 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선모형자동차 주행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 교사는 특기적성수당 전액을 무선모형자동차 유지보수에 사용할 정도로 이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교사 탐구 36 대경중학교 교무부장 이 옥 현

"실력 있는 교사가 되어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던 것이 교사 초임시절이었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먼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 위에 지식이 채워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26년째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대경중학교 교무부장 이옥현(48) 교사를 만났다.

이 교사는 부여백제초등학교, 천안여자중학교, 서울 한성여자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문리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을 2학기째 전공하고 있다.

1979년4월12일 동남중학교에 부임하여 18년간 근무했으며 1997년 공립 특채로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서 5년, 2002년3월1일 포천여자중학교, 올 초에 대경중학교에 부임했다.

신설학교 교무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 이 교사는 "교장 교감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료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탁월한 업무능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생활에서 과학원리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교육

## '고집은 버리고 지갑은 열어라'

이 교사에 대해 남충현 대경중학교 교장은 "신설학교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교사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교무실에서 개별지도는 물론 해양소년단을 조직하여 과학적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과학실 운영은 물론 교실수업 개선 현장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교사로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칭찬한다.

이 교사는 실제로 교실수업개선 현장연구를 통해 생활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는 물론 지적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으로 '요리로 만나는 과학원리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요리를 통해 과학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팝콘은 어떤 원리로 튀겨지는지? 목욕탕에 들어가 오래 있으며 피부가 왜 쭈글쭈글 해지는지? 등 학생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익혀 나가고 있다. 또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행시 짓기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있으며 생활속에서 과학원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워야할 주요 내용에 대해 이 교사는 왜 기상변화는 대륙권에서만 일어나는가? 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만들어질까? 지구의 내부를 네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이같은 지식을 알 수 있을까? 물이 끓게 되면 줄어드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세포조직의 특징은? 향수의 냄새, 왜 여름철에는 화장실 냄새가 더 날까? 왜 뇌는 주름으로 되어 있을까? 배설의 원리? 중력의 의미? 밀물과 썰물의 원리 등 실 생 활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교사가 된 동기에 대해 특별한 동기는 없었으며 대학교수님의 권유로 동남중학교에 부임하여 학생들을 만나보니 순박하고 순진한 아이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즐거웠다고 한다. 이제는 자신있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신설학교로서 처음 추진하는 교육사업이 전통으로 자리매김 되는 현실에서 이 교사는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기본생활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시험기간 중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아 수업시간동안 만큼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이 교사는 대경중학교 학생들의 영어회화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실제로 매일 5개 단어를 암기함으로써 같은 또래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대경중학교 학생들은 두 차례의 영어경시대회를 실시했는데 첫 번째 대회의 성적보다도 훨씬 나은 성적을 받아 영어실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교사는 교사로서의 계획에 대해 아이들이 이 교사를 보고 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엄하고 무서운 교사로 학생들을 대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했을때와 비교했을 때 교육효과는 부드럽게 대해 주었을 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학생이 실수를 하여 크게 혼날 줄 알았지만 부드럽게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간다고 한다.

'고집은 버리고 지갑은 열어라'는 말처럼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관리자로서 길을 걷고 싶다는 이 교사는 대경중학교 교장과 교감의 업무추진형태가 꿈꾸는 표본 모델이라고 밝힌다.

학생들에게 부드러우면서도 실력 있는 교사로서 올 겨울 방학에는 마술을 배워 마술과 과학을 연계시켜 보다 효과적인 과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 교사의 모습에서 대경중학교의 밝은 내일을 읽을 수 있다.

이 교사는 열심히 노력하여 2001년 제2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장상, 경기도교육감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21세기 한국의 비전 'O, Sharing Korea!'

## 이형모 시민의신문 대표 대진대학교 특강

지난 8일 대진대학교 대학원에서 개최된 '시민운동에서 바라보는 21세기의 비전과 뉴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이형모 시민의 신문대표가 특강을 하고 있다.

대진대학교 대학원(원장 박정근)은 지난 8일 오후5시30분부터 대진대학교 대학원에서 포천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학생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에서 바라보는 21세기의 비전과 뉴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특강은 시민단체 공동신문 시민의 신문 이형모 대표가 21세기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와 21세기 한국의 비전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21세기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노동의 종말과 시민의 일자리 요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고 지적했다.

21세기 한국의 비전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이제는 경제성장 신화를 극복하고 마음에서 돈 중독을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세기 중반에는 수출입국을 선언하여 해양에서 국운상승의 기회를 찾았으나 21세기는 대륙에서 기회가 온다며 '사람입국'을 선언하여 평생학습과 혁신으로 지식근로자가 된 한국청년들이 'O, Sharing Korea!'를 노래하며 한국을 나눠주려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가야 한다.

중국을 만나고 인도와 러시아를 만나러 가야 한다. 동아시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만나고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코카사스산맥 너머 중부 유럽국가들과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야 한다. 가장 큰 대륙 유라시아와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이 만나는 한반도에 서서 '사람입국'의 뉴패러다임이 가져올 국운상승과 세계평화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 나선 이형모 대표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경실련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사)뉴패러다임포럼 상임대표, (사)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회장, (재)녹색문화재단 이사장, (주)여의도통신 회장, (사)희망포럼 상임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윤종성의 미국어따라하기

15. 아침에 사장이 내게 인상을 쓰시데.

The boss **makes** me a face at me this morning.

더보스메익미서훼이스맷미디스모닝

*왜, 무슨 잘못이 있었어?

Why, what's wrong with you?

와이, 웟스륑우드유?

16. "비자(카드)"받습니다.

We take Visa, Sir.

우이 비자, 써-.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I'd like to **make** that in 3-month payment.

아이드라익투메익대린뜨뤼만스페이멘.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colyoon@nate.com

경 포천신문 창간 16주년 축

포천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의 시정을 해설, 소개하고
시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운영위원회 · 학생명예기자단 · 주부명예기자단 · 조사위원회